**2025년 / 2월 1주차**

##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2월 5일(수) 16시 : 연구원 사무국 주간회의

○ 2월 6일(목) 16시 : 마을기록화 1차 출판회의

## ■ 연구원 소식

**- 연구원 회원의 날 안내**

오는 3월 29일)토)~ 30일(일), 이틀에 걸쳐 연구원 회원의 날이 열립니다. 앞서 안내 드린 것처럼 앞으로 회원의 날은 개원기념식과 분리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 회원의 날은 그간 회원의 날에서 부족한 부분으로 평가되었던 숙소와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충남 공주에 자리한 계룡산에서 개최됩니다. 회원의 날 장소는 동학산장호텔(http://www.dhsanjang.co.kr/) 로 참가하시는 모든 회원이 편안한 숙소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번 회원의 날을 통해 회원은 연구원 사업의 경과와 전망을 이해하고 연구원은 특별 강좌를 비롯한 여러 행사로 회원 연대와 소속감 증진에 그 목적을 두도 있습니다. 개원 이래 처음으로 호남을 벗어나 열리는 2025년 회원의 날에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참가 신청은 추후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 ■ 역사 속의 오늘

### 봉황새 작전 – 1982. 2. 5.

한라산을 오르는 길은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가 대표적이다. 관음사 입구에서 등산로를 따라 4km 쯤 가면 <원점비>라는 푯말 하나가 있다. "검은 베레의 혼이 머무는 곳"이라 쓰여진 이 푯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오가는 이는 의외로 많지 않다. 벌써 43년이 된 과거이지만 정상적인 나라와 시민의 관계를 고민하는 이라면 그 날 이후 가슴의 시계가 멈춘 이들이 적지 않음을 기억하고 '1982년 2월 5일 한라산 중턱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를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

1982년 2월 5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출발한 공군 수송기 C123기는 다음날 제주국제공항 신활주로 준공식에 참석키로 한 전두환씨를 외곽 경호하기 위해 제주로 향했다.

출발지인 성남은 물론 도착지였던 제주 역시 눈보라였다. 출발지 서울공항 통제국은 모든 항공기 이륙을 금지시켰으나 <대통령각하 외곽경호 작전명 - '봉황새'>라는 국가 임무 앞에 이륙금지는 검불처럼 날아 가버렸다. 부당한 권력에 저항한 시민들을 이미 2년 전 폭도로 몰아 살육전을 벌인 이들에게 수송기에 탄 군인들은 다만 국가, 아니 자신들의 재산이라 생각되었으리라. 그 날 비행기는 제주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한라산 중턱 개미등 계곡에 추락하고 만다. 워낙 날씨가 좋지 않아 추락 만 하루가 지날 때까지 기체가 발견되지 않다가 2월 6일 오후 4시를 넘기고서야 기체와 탑승자들이 발견된다. 탑승했던 공수부대원 47명과 공군 6명은 전원 몰사한 채.

제주에서의 일정이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말하지 않던 전두환은 제주를 떠나기 직전에야 분향소에 들렀고 짧은 대사를 남긴다. "이번 사건은 조종사 착각으로 일어난 사고다.(사건은 사고다?) 인명은 재천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지만 전쟁시도 아니고 적과의 교전도 없이 평시에 53명의 군인이 사망한 이 사건은 아래와 같은 짧은 기사로 신문에 잠시 비춰졌다.

**"지난 6일 오후 3시경 제주도 지역에서 대침투작전 훈련 중 병력이 탑승한 C123 군용기 한 대가 악천후로 인해 추락했다. 이 수송기에는 육군 제7787부대 장병 47명과 공군 제5672부대 6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당일 오후 4시경 기체잔해가 발견됨으로써 이들은 순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원인은 이 수송기가 착륙하기 위해 제주도 해안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이상기류에 휘말려 한라산 정상 북방 3.7㎞ 지점에 추락했으며 자세한 사고원인은 조사 중이다. 한편 주영복 국방장관은 이번 C123기 추락 사고에 대해 사후처리 문제에 유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982년 2월 8일자 <동아일보>)**

1982년 2월 7일 정확한 상황을 알려주지 않은 채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는 군의 모르쇠에 진력이 난 일부 유가족이 부대 상황실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다. 유리창을 깬 것은 세 살과 돌 된 아이의 엄마였다. 남편의 죽음을 밝히고자 무엇이든 찾아야 했던 그녀의 손에 잡힌 것은 상황일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가지고 나온 상황일지. 사고 다음 날 아침 8시 45분, 그러니까 사고 기체가 발견되기도 전 박희도 공수특전사령관이 해당 부대 대대장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이랬다. "훈련명칭 변경 - 금번 훈련은 특별 동계 훈련으로 호칭하니 전 장병에게 주지시키기 바람." 즉 대통령 경호 작전인 '봉황새 작전'을 대간첩 '특별 동계 훈련'으로 호칭하겠다는 것이었다.

53명의 대한민국 정예 병사들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악천후를 무릅쓰고 출동한 게 아니라 '특별 동계 훈련'을 위해 공군의 반대와 공항의 통제를 무릅쓰고 떠난 것으로 둔갑된 그 일지가 빛을 보기까지 수십년이 지나야했다.

졸지에 자식과 가장을 잃은 유가족들은 그 인명들을 아직 하늘에 맡길 수 없었다. 일단 시신이라도 수습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었고, 왜 건장하던 그들이 산산이 부서져 죽어야 했는지를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것도 사람의 도리였다. 언론의 관심은 2월 8일자 석간 동아일보의 단신으로 끝이었고 그 다음은 오로지 '군사상 기밀'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던 군의 약속은 허언이 됐다. 2007년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 후 석 달이 지나 위령비 건립 때 제주도를 찾았던 유족들이 수습한 유골들만 해도 세 포대 분량이었다고 한다. 쉬파리와 까마귀들이 모여들어 있던 곳을 들추면 어김없이 썩어가는 시신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누구 것인지도 모를 뼈를 발견한 한 유족이 그를 갖고 가겠다고하자 인솔하던 군인은 허공에다 총을 쏘며 "명령이다 손 떼라"라며 유족들을 겁박했고 결국 시신과 유골들은 제주도에서 화장되어 동작동 국립묘지에 뿌려졌다.

더 기막힌 것은 이미 그 해 2월 9일에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희생자들의 시신 전체라며 장례를 치른 후 위령제에서 사단이 나자 부랴부랴 5월에 두 번째 장례를 치렀다는 것이다. 폭력적 국가 권력 앞에 이미 인간에 대한 예의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통곡의 세월이었다.

결국 사건은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이었던 장세동이 서울공항 통제국의 이륙 불가를 무시하고 제주로 이륙시켜 외곽 경호 작전을 강행한 것이 원인이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단순명쾌한 진리를 우리 역사가 보여줄 날이 올 때까지 잊어선 안 될 사건 가운데 하나이다. 봉황새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사지로 내몰린 대한민국 군인 53명이 1982년 2월 5일 한라산에서 숨을 놓았다.